민족문화연구 “『금석집첩』의 종합적 연구 3” 특집의 말

이번 특집은 일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에 대한 공동 연구 2차년 성과의 일부를 모았다. 전년도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학자에 의해 『금석집첩』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심경호의 「근대 이전 한국 석비문 및 비지문의 문체」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을 중심으로 석비 및 비지에 사용된 비문의 문체적 특징과 역사적 변화 양상을 구명하였다. 특히 서술 문체가 완결된 형식을 지닌 석비와 비지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고려 중엽까지는 서에 변문 혹은 변문-산문 혼용의 문체를 활용하고 명은 환운을 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변문-산문의 문체는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사용되었는데, 불교 비석을 제외하고는 변문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대부분 명을 작성했고, 명을 작성할 경우에는 구법과 압운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병서의 부분을 주로 고문으로 지으면서 기록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구조를 채용해서, 찬술자의 제술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이두어나 한국한자어를 사용하는 한국식 한문의 문체는 조선후기까지 석비에 활용되었다.

아울러 『금석집첩』 탁본 수록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문의 계보와 관련한 내용임을 주목하였다. 노론의 학맥을 이은 김재로는 노론 학자에 대한 예우를 탁본 정리에 반영하였으며, 노소 분당 이전의 서인 학자들을 두루 대우하고, 서인과는 대척적이었던 동인의 일부 학자에 대해서도 예우했음을 밝혔다.

정병삼의 「17-18세기 보현사 승비와 불교계 승비 건립의 변화」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는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였다. 『금석집첩』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승비 자료는 승비 제작의 추이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90기의 승비 중에 『금석집첩』에 채집 수록된 것은 41기이며, 이들 중 보현사의 승비가 15기로서 절대적으로 많다. 41기의 승비는 청허계 승려들의 비문이 대다수이다. 이들 『금석집첩』의 승비는 청허계 중에서 사명파가 금강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맥이 계승되며 활동

하였으며, 대둔사가 18세기 후반 불교계의 중심을 이루었음을 『금석집첩』의 비문이 확인해 주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이처럼 『금석집첩』에 수록된 승비는 17-18세기 불교계의 변화 추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보여주는 불교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편양파 승려들이 보현사와 대흥사에서 중첩되는 활동을 보이다가 점차 대흥사 중심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금석집첩』의 비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문식의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은 영조 대에 조성된 44건의 왕실 석물과 현판을 대상으로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왕실 현판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영조의 어제와 어필을 새긴 것이 많은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조는 모후인 인현왕후와 인원왕후, 생모인 숙빈 최씨에 대해 어필비를 남겼다. 영조는 가까운 가족을 위해 지은 글에서 슬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장 큰 슬픔은 맏며느리 현빈과 맏손자 의소세손의 지석에 나타났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종실 인물의 글씨가 많다. 왕실 현판에는 김재로와 김치인 부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 나타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명나라를 존중하는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석물과 현판을 조성한 시기를 표시할 때 명나라가 있을 때는 명나라 연호를 표시하였고, 청나라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연도만 표시하였다. 또한 명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준 시호는 반드시 기록하지만 청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준 시호는 기록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